

경영통계학 중간고사 일부 학생 늦게 시험 치러

나사랑 기자 nasarang31@khu.ac.kr

【서울】지난 10월 26일 경영통계학 중간고사 시험을 치른 네 개의 강의실 중 309호만 15분 늦게 시험을 응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 시간을 가지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영통계학은 약 250명이 듣는 대형 온라인강의다. 이번 중간고사는 오비스를 106호, 111호, 306호, 309호 총 4개의 강의실에서 온라인 대면 시험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309호는 앞선 수업이 연장 진행하고 있어 1시 30분이 돼도 학생들은 입실하지 못해 결국 1시 45분에 시험이 시작됐다. 시험 시작 전 309호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을 15분 더 주겠다고 했으나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시각에 자동 제출됐다.

이에 경영통계학 담당 장혜정(경영학) 교수가 추가적으로 15분 더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309호에서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이캠 퍼스 시험지를 다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문제 순서가 다 바뀌고 이전에 체크했던 답안은 다 지워진 상태였다.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원래 풀었던 시험지를 그대로 이어 풀게 만들기 위해 설정을 바꿨다. 그러나 본인이 고른 답뿐만 아니라 고른 답이 오답인지 아닌지까지 공개됐다. 결국 시험을 지속할 수 없다 판단돼 시험은 종결됐다. 결과적으로 309

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에 지난 3일 장 교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309호 학생들의 변환점수를 산출하는 방안이다. 이는 309호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2점수로 표준화한 후, 기존 퀴즈1 점수를 기준으로 309호 강의실과 유사한 그룹 강의실(111호, 306호)의 중간고사 점수 분포에 맞춰 역변환을 하는 것이다. 둘째, 퀴즈2와 기말고사 점수만으로 전체 성적의 80%(출석 10%, 퀴즈1 10% 제외)를 평가받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111호에서 시험을 응시한 A 씨는 자신이 “309호에서 응시하지 않아 309호 학생들의 성적을 Z 변환점수로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309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변환점수로 이득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이 Z 변환점수 외에 제시한 두 번째 대안은 학생 별로 반영비가 다른 성적을 산출하는 것이기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 씨는 “Z 변환점수를 산출하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309호의 학생이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이 제시한 두 번째 선택권이 최선의 대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 경희나이트 X 오픈스튜디오 미대 대학원생 13명 전시 선보여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지난달 30일 미술관 앞 마당과 미술대학관에서 ‘2024 경희나이트 x 오픈스튜디오’ 행사가 열렸다. 우리학교 대학원생 13명이 전시를 선보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큐레이트 101’ 전시가 열렸다. 미술대학관에서 열린 큐레이트 101은 13명의 대학원생들이 외부 예술인들과 소통하며 준비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공개한 전시다. 오후 6시부터는 경희나이트 행사가 진행됐다. 우리학교 밴드부와 외부 예술인의 공연이 있었고 행사장 한 켠에는 케이터링 공간도 마련됐다.

행사 기획자인 노진아(조소학) 교수는 “대학원생 13명이 7월부터 3달 동안 긴밀하게 신작을 준비했고 학생들에게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노 교수는 “우수 학생을 뽑는 것보다는 3개월 동안 학교가 아닌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키우고 어떻게 예술계에 접근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투표를 통해 선발된 일부는 외부 갤러리 전시에 참여할 기회를 받는다.

전문가 70%와 학생·일반 관객 30%로 투표 결과를 종합한 후 2~5명의 학생에게 개인전 기회가 생긴다. 개표 상황에 따라 2인전이나 3인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0일 ‘2024 경희나이트 x 오픈스튜디오’ 행사가 열렸다. (사진=미대 제공)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비영리 전시 공간 ‘공간형’의 예술인들과 협업했다. 공간형 김은희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평가보다도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라는 것”이라며 “혹여나 결과에 의해 슬프거나 낙담할 수도 있지만 가치의 발견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작품을 보고 투표해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응원해달라”고 인사말을 남겼다.

공간형의 장성욱 큐레이터는 “워크보드를 통해 학생들과 긴밀하게 대화했다. 외부 시선으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13명의 대학원생 작가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전시를 제작한 임동현(미술대학 2024) 씨는 “3개월 동안 전시를 기획하고 제작했다. 혼자 고민하고 구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역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생 때와 달리 대학원에 와서는 내 작품을 제작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행사는 미술을 꿈꾸는 사람들이 작품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술계에 계시는 큐레이터, 기획자, 작가분들과 대화하고 연락처도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외부 예술인들과 네트워킹하는 게 행사의 중요한 목표였다”며 “학생들의 작품을 좋은 자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싶은 엄마 같은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당선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오늘 이후로도 가질 기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